

GET운동 운영위원회 및 테헤란밸리 포럼 참석

우리 ESCO협회는 지난 7월 다양한 세미나 및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최석곤 회장은 지난 7월 6일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2004년도 상반기 녹색에너지가족운동(GEF)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으며, 15일에는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회 테헤란밸리포럼에 참석했다.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열린 테헤란밸리포럼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김균섭 이사장이 '고유가시대 에너지 정책과 산업기술 전략' 이란 주제로 1시간여에 걸쳐 국내외 에너지환경과 고유가시대 현안, 에너지 효율화정책, 기술개발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균섭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까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1천2백25개 사업장과 원스톱 에너지절약시스템구축 협약을 맺기로 했다"며 "전원당 평균 3.6W인 대기전력을 1W로 낮추는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도 도입,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경제신문사 김경식 과학기술부장과 에너지산업관련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가해 에너지전략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패널토론자들은 고유가 시기에만 대응하는 한시적인 절약대책이 아니라 기술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 등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지난 7월 6일에는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산업부문의 기후협약 대응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정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 기후변화협약 관계자 약 200여명



이 참석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국가협상 전략, 기후변화협약 국내 대응 기반 마련,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21일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에도 참석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최근 정부정책으로 추진중인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설명과 실제 도입사례 분석을 통한 도입시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밖에 (사)한국설비기술협회와 축열기술전문위원회가 주관한 축냉시스템 보급활성화를 위한 축열 냉방시스템 강연회에 참석하였으며, 22일에는 영국통상산업부 산하 과학기술원장이며 과학기술담당고문인 David King 경이 강연한 기후변화세미나에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외부행사를 가졌다.

